

한번은 국민일보 컬럼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을 도둑맞았어요. 신발을 훔쳐 간 도둑 때문에 그 학급에서 소동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신발 도둑을 잡는 일은 아주 쉽지요. 아이들은 순진해서 훔친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기 때문이죠. 신발 검사 결과 신발을 훔친 아이는 금방 드러났답니다. 신발을 훔치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훔친 신발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를 불렀어요. 아마도 이 아이는 집안 살림이 넉넉한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신발을 그 아이에게 주면 안 되겠니? 너는 부자라서(넉넉해서) 신발이 여러 켤레 있잖아?” 선생님은 신발을 훔친 아이를 혼내다가 그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신고 올 신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신발을 훔친 것은 분명 나쁜 일입니다. 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의가 있는가하면 자비/은혜/사랑이 존재합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사랑은 덮고, 품어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이 둘의 밸런스를 늘고 고민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십자가 대신) 사랑을 붙들어 방종에 빠져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대신) 의를 붙들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지요? 하나님과 나와서 관계에선 정의를 붙잡고, 사람들과 나와서 관계에선 사랑을 붙잡아야지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함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웃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세요. 그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로움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52, 53절, 우리 주님께서 자기와 및 동행하는 제자들과 묵을 곳과 음식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로 앞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마을 주민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고로 저희가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들의 다툼의 중심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예배처를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들에게 냉담했죠. 이처럼 주님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같이 반응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아들” 이라고 부르셨던(막 3:17)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불같은 열심에 가득차서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소멸해 버리기를 원하느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자신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뿐만 아니라 감히 주님까지 외면한다고 하니 꽤 씩씩한 생각에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믹스업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한거죠.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 아무리 열정적이여도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법

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성경말씀을 늘 가까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보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죠!

자기와 조금 의견이 다르고, 혹은 행동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곧 배타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죽어 있지 않으면,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더욱 이 제자들은 성급하고, 적대심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들이 엘리야처럼 이적을 행하여 남을 불사를 것으로 생각한 건, 지나친 자만심일 뿐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는 세상적인 마음입니까! 열심의 가면을 쓴 교만, 종교적인 이유를 붙여서 함부로 행동하려는 성급함, 주님의 뜻과 사명을 조금도 분별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삶...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날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님을 따른다고 자처하지만 결국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혈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는 주님을 따르려고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번째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고자 나서는 자들이에요. 물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성급한 나머지 생각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하셨거든요! 소위 오빠 부대처럼 그의 주변에 늘 많은 군중들이 몰려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 따져보았을 정도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고 말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잘 풀릴 때, 내가 복받을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따라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포기하고 돌아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서는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르면 큰 저택에 살고,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로, 이번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청합니다(59절). 이 말씀은 '성도가 부친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는 뜻은 당연히 아니에요. '나중에 두고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없다는 말도 있지요! 그는 '나이드신 자기 부친이 죽을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렸다가, 죽고 나면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그 때 주님을 따르겠다' 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도 예수님을 따르긴 할텐데 이사람 역시 우선 순위가 다른 곳에 가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인사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족과 작별도 못하는가?' 물론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런 경우의 사람은 무슨 사소한 일만 생기면, 금방이고 집에 돌아갈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 관한 말씀은 '한 번 결단을 내렸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쟁기질은 씨를 뿌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늦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실 "바로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누가는 이 세 경우에서 어느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들 중 그 누구도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의를 붙잡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사랑을 붙잡아라. 2.이 땅에 머리 들 곳, 즉 세상에서 한 자리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지 말라. 3.신앙생활 할 때, 나중에 두고보자, 나중에 잘하겠다고 하지 말라. 4.마찬가지로 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뒤 돌아보지 말라!

종합해보면, 어중간한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가 차갑지도, 덤지도 않으니.."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첨에는 사실,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에 속할까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어느정도 세상적인 자랑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인데... 그러다가요... 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한심해 보이는 결단을 보았습니다. 누가 낫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보니, 그 한심함 속에 저도 예외가 아님을 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치 않을 때 저 같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 같아요. "내가 저런 인간들 땀에 이런 고생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가셨습니다. 이렇게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복음서가 중에 김석균 작사/작곡의 “누구를 위함인가”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쓰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주/ 마지막 피한방울 나위해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주/ 마지막 피한방울 나위해 흘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인해 끊어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던 사람들이 모두 한심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어도 주님께서 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할 길 없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맘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한주간도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